

## 화양구곡이야기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의 조화가 이름난 곳으로, 조선 후기 대학자인 우암 송시열선생이 머물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화양계곡에 머물면서 중국의 주자가 무이산 계곡에 무이구곡을 정한 것을 본 따, 화양계곡의 아홉 명소들을 골라 화양구곡으로 정하여 지금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 제1곡 \_ 경천벽



가파르게 솟아있는 층암절벽이 마치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듯하여 유래되었습니다.

### 제2곡 \_ 운영담



계곡의 맑은 소담위로 구름의 그림자가 비친다하여 유래되었습니다.

### 제3곡 \_ 음궁암



우암 송시열선생이 효종의 승하로 북벌이 좌절되자, 효종의 기일마다 이 바위 위에 올라 통곡하였다고 하여 유래되었습니다.

### 제4곡 \_ 금사담



계곡의 모래알이 금싸라기처럼 맑다고 하여 유래되었습니다.

### 제5곡 \_ 첨성대



겹쳐있는 바위의 높이가 약 100미터에 이르며 그 위에서 성진을 관측 할 수 있다고 하여 유래되었습니다.

### 제6곡 \_ 능운대



하늘을 우러러 치솟아 있는 장대한 바위의 자태가 마치 하늘을 향해 구름과 맞잡을 수 있다고 전해지며 오래전에 장군의 능을 닮았다하여 유래되었습니다.

### 제7곡 \_ 와룡암



길게 늘어진 바위의 모습이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듯하다고 하여 유래되었습니다.

### 제8곡 \_ 학소대



백학이 바위 위에다 집을 짓고 새끼를 길렀다하여 유래되었습니다.

### 제9곡 \_ 파천



신선들이 술잔을 나누었다는 전설이 깃든 곳으로, 용의 비늘을 꺾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유래되었습니다.

## 국립공원해설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프로그램명 : 화양동계곡친구들  
참가 방법 : 선착순예약  
인터넷 : <http://songni.knp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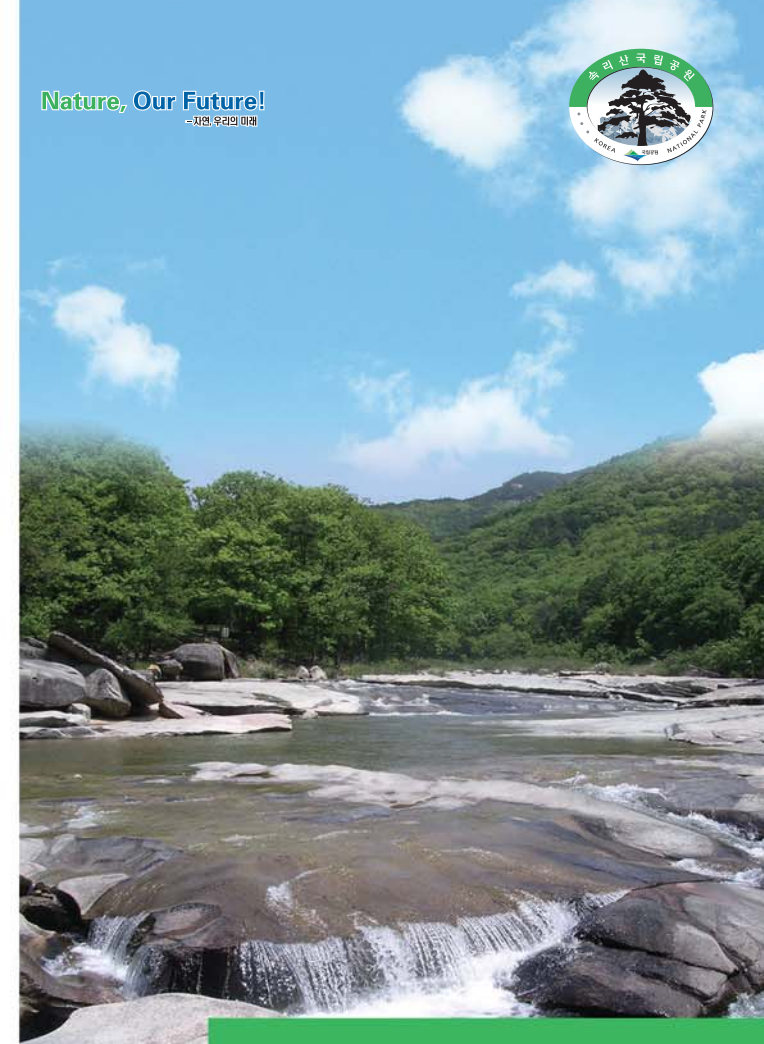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화양동분소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277  
Tel : 043)832-4347

Nature, Our Future!

-자연 우리의 미래-



## 속리산국립공원 탐방안내(화양동)

화양 동은 화양 목이 많아 서 황(황陽)洞(동)으로 불리다가 효종때(1666년) 우암송시열선생께서 이곳에서 주자학을 연구하고 의리사상을 길러 오면서 화양동으로 불려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화양구곡, 선유구곡, 도명산, 화양서원, 민동묘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 자연이 인류에게 주는 선물 "국립공원"

자연, 우리의 미래!

- Nature, Our Future!

## 탐방코스

- 1코스 침성대 - 도명산 (3.2km)
- 2코스 학소대 - 도명산(2.8km)
- 3코스 공림사 - 도명산(2.7km)
- 산책로 탐방지원센터-자연학습원(4.5km)

## 화양서원



화양서원은 우암 송시열선생의 문하생인 권상하가 우암을 제향하기 위해 건립했으며, 조선후기 정국을 주도했던 사람의 중심지로 당시 사액서원 중에서도 가장 이름있고 위세가 당당한 곳이었습니다. 화양목패 등의 폐단과

대원군이 이곳을 지나갈 때 봉변을 당한 적이 있어서 서원 철폐령 때 제일 먼저 철거되었다가, 그 후에 복원이 되어 지금의 모습에 이르고 있습니다.

## 만동묘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을 파견한 명나라 신종과 의종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화양서원 인근에 만든 만동묘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하고 명나라를 무너뜨린 청나라를 사상적으로 부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만동”은 선조의 어필 중 “만절필동(萬折必東: 불이 만 구비를 꺾어 흘러 동해로 들어간다)”에서 나온 말로 중화의 맥을 조선이 잇는 다는 것이다.

또한, 만동묘에 오르는 계단 디딤 폭을 좁게 한 것은 황제를 배알할 때의 예법인 엽걸음으로 오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 화양동 도명산



도명산은 높지 않고 탐방로 정비가 잘 되어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산행을 즐길 수 있고, 화양계곡과 암봉이 잘 어우러져서 절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 아래에 있는 마애삼채불은 도명산 산행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입니다.



범례	
	국립공원경계
	지방도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탐방지원센터
	화장실
	버스정류장
	산
	사·불·교
	폭포
	탐방지원센터
	화장실
	버스정류장
	산
	사·불·교
	폭포